



2면

제2회 전북포럼 개최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음 8월 4일)

제38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미래 광역도시 전주’ 도약 출발 알렸다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기공식

▶ 관련기사 3면

옛 종합경기장 부지서 조성
2028년까지 총 3000억 투입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성장
관광객 유입 증가 등 효과

전주시가 60여 년간 전주시민의 추억이 서려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미래 광역도시 전주를 여는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첫 삽을 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지역 주요 기관장, 일반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기공식은 시가 지난 수년간 준비해 온 대규모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공식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식전공연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홍보영상 상영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기공 버튼 터치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새롭게 펼쳐질 전주이야기’를 주제로 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와 ‘전주, 미래 광역도시를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합니다’를 주제로 한 기공식 퍼포먼스는 행사장의 열기를 고조시켰고, 유명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홍



24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운이 출연한 축하 공연은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와 관련 전주컨벤션센터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약 8만3,000㎡에 총사업비 약 3,000억원이 투입돼 1만㎡ 전시장과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2개 중소회의실 및 회의 공간, 1만㎡ 규모의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8년 말 센터가 완공되면 국제회의와 전시, 세미나 등 대형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 전주를 국내외 비즈니스와 관광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 인근에는 호텔과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마이스 단지화 연계한 각 동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히 전개된다.

시는 이번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관광객 유입 증가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 중심부 활성화와 함께 문화·경제 인프라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설계공모를 거쳐 ‘지붕산수’라는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에 임해왔다.

또 지난 7월에는 전주 시민의 추억이 서려 있는 전주종합경기장의 철거가 완료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주컨벤션센터는 전주를 넘어, 14개 시군

을 잇는 전북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망 연계, 관광자원 네트워크,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 등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념사에서 “전주컨벤션센터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전주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력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광주·전남
호남의 매력 알린다

2025 호남관광문화주간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서울역 공동홍보관 운영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손을 잡고 호남권의 매력을 알리는 대규모 관광·문화 공동 프로젝트를 펼친다.

전북·광주·전남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세 갈래의 길, 하나의 여정’을 슬로건으로 2025 호남관광문화주간을 공동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서울역에 공동 관광홍보관이 문을 연다.

29일부터 2주간 운영되는 홍보관은 수도권 교통 거점의 강점을 활용해 귀성객과 수도권 여행객을 대상으로 호남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한다.

전북은 임실N치즈축제, 군산 시간여행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순창 장류축제 등 도내 대표 축제를 집중 홍보하며, 쌍화차·추어탕·풍천장어 등 가을철 향토 음식도 선보인다.

또한 세 시도가 하나투어와 손잡고 기획한 1박 2일 특별 여행 상품도 출시된다. 광주 ACC와 전일빌딩, 전주 한옥마을, 목포 유달산 등 각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코스와 지역별 미식 체험을 결합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호남관광문화주간에는 관광객 맞춤 인센티브도 준비됐다. △KTX 운임 최대 30% 할인과 숙박비 3만원 지원(레일벨), △내일로 패스 소지자 숙박비 1박 1만 5,000원 할인(최대 2박), △7만원 이상 숙박 시 2만원(자체), 5만원(문체부) 할인 혜택이 마련됐다. 전북은 여기에 ‘전북투어패스 1+1 이벤트’를 더해 개별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정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과 광주, 전남이 한데 모여 추석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으며, 호남이 한국관광을 이끄는 삼두주자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맞춤형 악취저감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도는 최근 3년간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339개소에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6배) 줄고, 관련 민원은 40%(10→6건) 감소했다. 이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대책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에도 미생물제 등 악취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방지시설 효율을 높인 덕분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총 16억4,800만원을 투입해

도민 맞춤형 악취저감사업, 생활환경 개선 효과

전북자치도, 최근 3년간 축사 등 339곳에 사업비 총 85억원 투자

악취 농도 평균 67% ↓ · 민원 40% 감소… 방지시설 효율 높여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미생물제 보급 162개소, 탈취탑 설치 3개소,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7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9월 현재 63개소 완료, 109개소가 추진중이며 연내 마무리되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 성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 완주군 비봉면 퇴비화시설 등 5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내 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내

악취저감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악취 농도는 기존 부지경계 기준 15배, 배출기 기준 500배였지만, 악취관리지역은 각각 10배, 300배로 적용된다.

그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설치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였으나, 도는 환경부 악취저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속도

를 내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에서 반복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민·관 합동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전주·익산·김제·완주 4개 시군과 전문가,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축사 매입, 계사 정비, 퇴·액비 제조시설 관리 등 6대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2차 상설협의체에서는 김제 용지면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기업에게 사랑을
도민에게 행복을!

Since 1935. 9. 30

창립 제90주년

전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90년의 발자취,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

근로자 가요제 9. 27(토) 19:0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 ▶ 12팀 본선
- ▶ 초청가수 공연

기념식 9. 29(월) 10:30

라한호텔 전주 온고을홀

- ▶ 기념사 / 축사
- ▶ 유공자 표창
- ▶ 비전선포식
- ▶ 축하공연

특별강연 9. 29(월) 14:00~16:00

라한호텔 전주 온고을홀

- ▶ 박영선(前 중소기업부 장관)
- ▶ 주제: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
- ▶ 김경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 주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 6국 3특 균형성장 발전전략

전주상공회의소